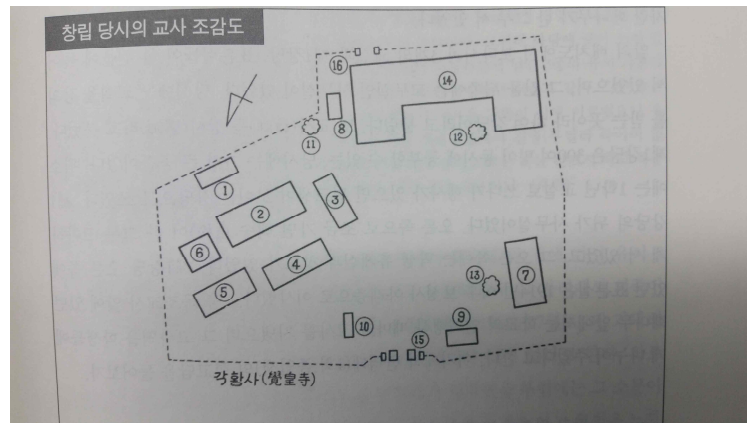


보성전문 초기 교사 조감도¹⁾

점선으로 된 테두리가 총숙공이 1906년 김교현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이며 현재 조계사가 자리잡고 있다. 그림 아래쪽(현 수송공원)에 각황사가 보인다. ⑭는 1914년 신축한 건물이며(신축 전에는 운동장), 그 외의 건물은 김교현으로부터의 매입 당시 보성전문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한식 기와집이었다. ⑭가 건축된 이후에도 ⑨는 철거하지 않고 사용했다(①은 교우회 사무실, ⑧은 교사 숙직실, ⑦⑨는 원 용도대로 각각 보성사와 수위실).

①은 사무실(교무실), ②는 제1강당(양 300명 수용), ③④⑤는 교실, ⑥은 표본실, ⑦은 보성사, ⑧은 학생휴게실 겸 창고, ⑨는 수위실, ⑩은 중문(⑭가 생기기 전 이 중문 주위에 담장이 있었고 이 문을 통과하여 교실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됨), ⑪은 백송(현존), ⑫⑬은 회화나무(두 회화나무 중 ⑫만 현존, ⑫의 회화나무 앞에서는 연례행사로 고사를 지내고 고사떡을 학생들에게 나눠줌), ⑭는 1914년 신축 건물, ⑮는 정문, □은 건지동으로 통하는 후문이다.

⑭의 ‘ㄷ’자 모양 건물 앞의 회화나무(⑫)의 수령이 거의 500년에 가깝다고 한다. 그 나무는 지금까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. 이 회화나무는 현재 조계사 대웅전(위 사진에 필자가 붉은 색으로 표시) 앞에 있으며, 그 위치를 토대로 건물 ⑭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.

1) 그림은 보성중학교 초기 졸업생들의 기억을 몽타주하여 보성중고등학교 교지 『보성』(개교 60주년 기념호)에 실린 것을 학교법인 동성학원, 『普成百年史』, 2006, 89면에 전재한 것이고, 설명도 같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.